

# 택시 노후 카드단말기, 승객도 기사도 불만

### 광주 택시 대부분 2012년 생산 제품 2015년 단종 특하면 먹통되고 결제 지연...국제도시 이미지 훼손 市 “한페이시스서 단말기 관리” 대책 마련 팔짱만

택시운전자 김모씨는 택시에 설치된 카드결제단말기만 보면 화가 치민다. 결제도중 먹통이 돼 시동을 껐다 다시 걸어야 작동이 되는가 하면 결제시에도 카드 승인까지 20초 넘게 걸리는 경우도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김씨는 “일부 승객은 ‘카드결제를 하기 싫어 일부러 시간을 끄는 것 아니냐’며 불쾌한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면서 “서울 등 타지역은 카드단말기가 바로바로 작동하는 데, 유독 광주만 말썽”이라며 불통을 터뜨렸다.

택시를 자주 이용한다는 이종구(38·광주시 북구)씨는 “신용카드도 결제할 경우

택시 안에서 길게는 수십 초간 카드승인 여부를 기다려야 한다”면서 “매번 결제가 늦다 보니 급할 때는 현금계산을 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광주지역 택시카드결제단말기가 노후화하면서 통신오류와 결제시간 지연 등이 속출, 이용 시민은 물론 택시운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외지에서 광주를 찾는 방문객의 불만이 이어지면서 국제도시를 자처하는 광주의 이미지 실추도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시민의 교통불편 사항을 해결하고 감독·관리해야 할 광주시는 실패과 악은커녕 결제서비스 운영사에 책임을 미

루는 등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현재 광주에서 운행 중인 택시는 총 8204대다. 광주지역 택시에 설치된 카드결제 단말기 대부분은 B사에서 2012년에 생산한 제품으로, 이 기종은 지난 2015년 단종됐다. 이 카드단말기 중 상당수에서 노후화 등으로 결제 지연, 통신오류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택시운전자들의 주장이다.

광주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한 관계자는 “택시기사들 사이에서 단말기 결제 지연, 통신오류 등을 호소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말썽많은 광주시 택시카드결제 서비스는 롯데정보통신, 마이비, 광주은행 등이 공동 출자해 만든 ‘한페이시스’에서 맡고 있다.

택시미터기에 연결해 사용하는 카드결제단말기는 승객이 카드로 택시요금을 결제하면 카드회사에서 5일 후 개인과 법인

의 계좌로 결제된 금액을 입금해 요금을 정산해 주는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다.

광주시는 매년 한페이시스 측에 택시 카드결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카드수수료(2016년 기준 9억6000만원)와 통신비(5억3000만원)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총 지원금은 지난해 기준 총 15억여원에 이른다.

광주시는 이처럼 연간 10억원이 넘는 예산을 택시 카드결제 활성화 명목으로 지원하면서도 카드 이용 불편에 따른 대책에는 사실상 두 손을 놓고 있다.

광주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카드결제단말기 운영을 맡고 있는 한페이시스에서 24시간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등 실시간으로 민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광주시로 접수되는 카드결제 단말기 관련 민원도 한 달 평균 5건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특히 대부분 민원이 택시 승객이 아닌 택시기사의 결제 오류 민원”이라고 밝혔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양산제 쾌적하게 연꽃 제거합니다” 광주시 북구청 공무원과 직원 등이 1일 양산동 본촌근린공원 내 양산제에서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연꽃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전두환 정권, DJ 집요하게 사찰했다

### 5·18 정치적 파급력 억제 목적 505 보안부대 주도 뒷조사 왜곡된 도민 여론조사 정황도 민주당 이철희 의원 문건 공개

전두환 정권 당시 국군 보안사령부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을 집요하게 사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5·18 민주화운동의 정치적 파급력을 억제하기 위해서 505 보안부대 주도로 이같은 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입수한 보안사 예하 505

보안부대의 1985년 4월 30일 자 ‘특별 보고’ 문건에 따르면, 보안사는 ‘K.T.’라는 별칭을 붙여 김 전 대통령 주변을 뒷조사했다.

505보안부대는 “K.T. 추종 세력은 13개 단체 235명”이라며 “광주에 8개, 목포, 무안, 순천, 함평, 장성에 각 1개의 단체가 있고 대부분 50세 이상 노년층으로 구성됐다”고 보고했다. 이어 “신민당과 민한당 가입자들이 주선해 364명이 9월에 걸쳐 K.T. 가(家)를 집단 방문했다”며 “이와 연계한 광주사태 관련자는 K.T.가 행동 방향을 결정하면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505보안부대는 학생, 종교인, 공무원, 경제인, 일반시민 등이 김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리한 ‘도민 시각’을 보고했다. 전남도민의 계층별 여론을 조사한 것이다.

학생은 김 전 대통령을 ‘우리의 꿈을 실현해줄 유일한 전남 출신 인물’로 보고, 종교인은 ‘K.T.와 Y.S(김영삼 전 대통령)가 손잡고 일해야 민주주의가 이룩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또 공무원들은 ‘K.T.나 Y.S.는 상호 권력 다툼으로 자멸할 것’으로 전망하고, 경제인은 ‘K.T.의 영향력이 정국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어 경제불황과 관련된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진단했다.

일반시민의 경우 “K.T.의 인기 상승은 본인의 위대함보다 현실에 대한 불만 덕분”이며 ‘K.T.로 인해 광주 시민이 또다시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보고했다.

505보안부대는 김 전 대통령이 활동하면서 ‘기회주의적 성향을 표출’하는 것으로 여론을 조상해야 한다고 지침을 내리는 듯한 표시를 보고서에 남기기도 했다.

이 의원은 “전두환 정권이 5·18 유족과 김 전 대통령의 만남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알 수 있다”며 “과거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에 사이버사 등이 잘못된 역사를 반복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채무·지병 못건디고...안타까운 죽음들

### “사는 것이 힘들다” 광주서 극단적 선택 잇따라

경기불황에 채무와 지병 등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시민이 잇따르고 있다.

1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지난 31일 오전 9시50분께 광주시 광산구 신가동하의 한 원룸에서 박모(51)씨가 숨져있는 것을 전 직장 동료인 김모(55)씨가 발견했다. 김씨는 “박씨가 며칠 전부터 연락이 되지 않아 원룸으로 찾아갔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결과 독신인 박씨는 하지불안증후군이 악화하면서 직장생활도 그만 두고 집에서 홀로 생활해 왔다.

박씨가 남긴 유서에는 “사는 것이 힘들다. 미안합니다. 화장 좀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글이 적혀 있었다.

경찰은 박씨가 투병 과정에서 늘어난

대출금과 신용카드 연체 등에 따른 생활고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날 광주시 광산구 운남동에서도 공인중개사 김모(49)씨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는 이날 사무실 소파에 누운 채 숨져 있었으며, 강씨 옆에는 화로와 타다 남은 연탄, 유서 등이 발견됐다.

김씨의 유서에는 “빛은 많은데 값은 강력이 없어 힘들다. 죽어서까지 집이 되는 이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채무가 있던 김씨가 최근 공인중개사를 찾는 손님이 줄어들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현영기자 young@

# 권은희 의원 항소심도 무죄

###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김용만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일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모해위증죄는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범정증인이 허위 진술을 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모두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없기 때문에 무죄로 판단하는 게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선고 직후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에 파견된 검사들조차 수사 방해에 일조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얼마나 검찰이 편파적으로 일련의 사건들을 다루왔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더 정확한 실체가 밝혀질까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검찰, 이영학 사형·무기징역 적용 구속기소

### 변태적 성욕 해소하려 범행

‘어름니 아베’ 이영학(35)은 아내 사망 이후 자신의 변태적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여중생을 유인, 추행하고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북부지검은 1일 이영학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하며 그의 범행 동기와 경위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이 적용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이 유죄로 인정되면 무기징역 또는 사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영학은 지난 9월 30일 낮 12시 20분께 딸(14·구속)을 통해 A(14)양을 서울 중랑구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낮 A양이 잠에서 깨어나자 젖은 수건을 얼굴에 덮고 수건과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결과 이영학은 A양이 수면제를 먹고 잠든 뒤에도 주사기를 이용해 입에 약을 흘려 넣어 몽롱한 상태를 유지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영학은 A양을 살해한 지난달 1일 오후 9시 30분께 시체를 여흥용 기방에 넣어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신고 강원 영월군 야산으로 이동해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연합뉴스

### 흙친 카드로 산 담배 퇴판 30대·사들인 지인 함께 경찰서행

○30대 남성이 짬짬에서 흙친 신용카드를 구입한 담배 등을 팔았다가 이를 사들인 지인과 함께 경찰서행

○1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김모(33)씨는 지난 9월17일 새벽 1시30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한 짬짬에서 잡자고 있던 여대생 조모(19)양의 휴대전화

와 신용카드를 빼돌린 뒤 편의점 3곳을 돌며 조양의 카드로 담배 14보루를 구입, 이모(31)씨에게 휴대전화는 18만원, 담배는 14만원을 받고 팔았다는 것.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김씨 판매하려는 휴대전화와 담배가 잘못된 줄 알면서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씨는 경찰서에서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 /김현영기자 young@

##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2개>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아파트]					
2017타경 9655	1	광산구 신창동 1270 신창2차부영아파트 202동 11층 1101호 84.7886㎡	아파트	202,000,000	관리비는2017.3.2 24.80㎡ [우정회지분2/11전부, 태양광시설매각 제외, 일부층복부부매각포함]
2017타경 10037	1	광산구 우산동 1039-5 202동 12층 1310호 49.5㎡	아파트	67,000,000	
2017타경 10693	1	광산구 소촌동 290-32 온세계아트빌 102동 4층 401호 84.7449㎡	아파트	203,000,000	
2017타경 63123	1	북구 연제동 1009 연제2차대주파오래 201동 8층 803호 84.8728㎡	아파트	239,000,000	2017타경 15124 [중복]
2017타경 7529	1	서구 금동동 878-2 207.5㎡ 제시외 다중도 18.1㎡ [기흥아4층에소재]	대	543,592,200	일괄매각, 제시외 실 18.1㎡ [기흥아4층에소재]
2017타경 8928	1	담양군 봉산면 연동리 278 327㎡	대	65,788,320	일괄매각, 수목매
[연립주택/다세대/빌라]					
2017타경 6731	1	남구 봉선동 936-7 4동 1,2층 2호 1-2층 24.80㎡ [우정회지분2/11전부, 태양광시설매각 제외, 일부층복부부매각포함]	다세대	9,780,000	지분매각, 공유자 우선매수권행사1 회로제한
2016타경 22897	1	장성군 북하면 대리리450 3504㎡ [농지취득 전 지역격령요 [2017.8.1 사실조회보서상현황 농지아니어서향후원상회복명령발할가능 있음, 원상회복조건으로 농지증명명발급안할 시행정심판, 행정소송여지있음]]	전	32,236,800	공부상행지, 분도 수기소재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거래승인인이 매각신청자일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행히 될 위험은 매각신청자에게 있고 매각대상 매각대금에 산입된다. 불행할 경우로 인한 원상복구 필요할 경우 매매가액의 10%를 부담할 수 있음.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2017타경 5530	1	나주시 용산동 66 181㎡ [현황목답]	답	18,195,000	수목매각포함
2017타경 62762	1	담양군 용면 두정리 198 1700㎡ [분묘소재, 타인소유불나유매각제외]	임야	28,900,000	지적도상행지
[상가/오피스텔, 근린시설]					
2017타경 5776	1	서구 황촌동 96 광명하이츠타운 상가동 2층 203호 55㎡	근린시설	53,000,000	
2017타경 7161	1	나주시 성북동 142-7 69㎡	대	3,260,352,80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및 수목포함, 단독4이동가동한 컨테이너3동매각 제외
2017타경 8034	1	회산동 도곡면 천암리 750 3673㎡	대	3,744,229,96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포함
		동소 145-2 1층353.67㎡ [휴게음식점] 498.2㎡매점, 채력단편경, 85㎡ 2층866.7㎡ [음식점] 3층678.88㎡ 184.31㎡ 4층260.88㎡ [사무소] 지하1층154.32㎡ [기계실]	주택	3,260,352,800	
		동소 750 1동지침 123.48㎡ 1층677.25㎡ 2층803.86㎡ 3층379.61㎡ 제시외건조장60㎡	숙박시설	3,744,229,960	
		동소 750 1호 2동 1호376.96㎡ 2층452.65㎡ 3층163.51㎡	숙박시설		
		[자동차, 중기]			
2017타경 11276	1	사용번호: 광주 북구 북문대로 166 103동 311호 [운행중, 우미아파트] 등록번호: 87지 5221 차량:그랜드 스타렉스 연식:2012	자동차	14,000,000	보관장소: 광주 광산구여대길222-1 송암주차장
2017타경 64751	1	사용번호: 나주시 왕곡면 신원골길 76 등록번호: 전남740351 차량:FX212 연식:2008	자동차	33,000,000	보관장소: 광주 광산구용영길2165-1 5, 대영씨연회
		[기타]			
2017타경 7833	1	남구 월산동 32-1 306㎡ 제시외 차량 등 3대 8.61㎡	대	252,496,78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포함
		남구 구서동76번길 7 1호 63.03㎡ 부속건물 4호 2호 1호 8.55㎡ [현황월실]	단독주택		
		동소 7 2호 109.49㎡	단독주택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거래승인인이 매각신청자일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행히 될 위험은 매각신청자에게 있고 매각대상 매각대금에 산입된다. 불행할 경우로 인한 원상복구 필요할 경우 매매가액의 10%를 부담할 수 있음.

① 공표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② 공표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③ 공표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④ 공표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⑤ 공표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⑥ 공표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⑦ 공표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⑧ 공표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⑨ 공표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⑩ 공표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⑪ 공표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⑫ 공표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⑬ 공표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⑭ 공표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⑮ 공표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⑯ 공표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⑰ 공표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⑱ 공표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⑲ 공표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⑳ 공표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㉑ 공표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㉒ 공표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㉓ 공표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㉔ 공표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㉕ 공표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㉖ 공표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㉗ 공표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㉘ 공표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㉙ 공표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㉚ 공표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㉛ 공표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㉜ 공표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㉝ 공표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㉞ 공표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㉟ 공표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㊱ 공표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㊲ 공표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㊳ 공표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㊴ 공표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㊵ 공표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㊶ 공표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㊷ 공표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㊸ 공표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㊹ 공표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㊺ 공표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㊻ 공표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㊼ 공표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㊽ 공표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㊾ 공표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㊿ 공표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17. 11. 2.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노덕성